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네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제4회 컴세미나 / 회교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실제적인 목회 현장 탐방 및 한국 교회의 성장 이해의 기회로

9월 20일(수) ~ 28일(목), 회교권 목회자 37명 초청

교회는 오는 9월 20일(수) ~ 28일(목)까지 8박 9일간 제4회 충현 해외목회자 교육세미나(Choonghyun Overseas Ministers Education Seminar)를 개최한다. 일명 COME 세미나로 불리는 이 세미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온 세계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모습을 보여주며 부흥하게 된 원인과 방법을 인도하는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9월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며 열리게 된 것이다.

금년에는 회교권 중에서 이집트 목회자 26명, 수단 목회자 3명, 터키 목회자 4명 및 이집트 이준교 선교사 내외, 수단의 김영대 선교사, 터키의 김영대 선교사 등 37명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갖게 된다.

초청대상자는 ① 현지 교회 목회자로서 충현교회의 선교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 ② 현지 교회, 교단, 교계 및 종교 행정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 ③ 충현교회와 계속적으로 목회 교류가 가능한 사람 등으로 이집트 목회자는 이준교 선교사가, 수단 목회자는 김영대 선교사가, 터키 목회자는 김원호 선교사가 초청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지난 90년에 동구권 7개국 목회자 27

명이 참가함으로써 처음 열린 세미나는 91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국어권 목회자를 초청하여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목회자 31명을 초청하여 실시했다.

9일간 진행될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한국 보수주의 신앙의 전통을 소개, 현지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 실시, 세계선교의 현황 및 회교권 선교의 전략과 방법연구 등의 내용이 다뤄질 계획이다.

세미나 기간 중에 강의와 현장 답사, 교회 내의 각 부서 탐방, 구역예배 참관, 소그룹 인도법, 금요집회, 충현기도원에서 산상기도회 등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주요 강의 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목회자의 경건과 영성 / 김창인 원로 목사
- 한국교회 성장의 전략과 비결 / 신성중 목사(충현교회 당회장)
- 설교 사역과 교회부흥 / 정성구 교수(전 총신대학장, 총신대 교수)
- 개인전도 및 제자훈련 / 정삼지 목사(제자교회 담임목사)
- Group Bible Study 인도법 / 정삼지 목사(제자교회 담임목사)
- 새신자 목회와 교회성장 / 명성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성장 연구소장)

·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배경 (네비우스선교방법) / 이만열 교수(숙대 교수)

· 새벽기도회를 통한 영성훈련과 교회부흥 / 나겸일 목사(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

· 실천신학 교육

(1) 새벽기도(담당: 이종대 목사) / 구역예배(담당: 정봉환 목사) / 금요집회(담당: 현상민 목사) / 산기도(담당: 윤종일 목사) / 교회학교 운영(담당: 정광옥 · 장경철 · 한용관 · 장봉생 목사) / 소형교회 방문(조운재 · 박경한 목사)

컴세미나 준비위원 조직표

- 준비위원장: 장순용 장로(교훈원 부원장)
- 지 도: 윤삼중 목사(교훈원 지도)

분과	분과장	지도	위원	실무위원	주요관장업무
기획	노광현		윤명식, 우기전, 서동석		기획, 총괄관리
진행	이종석	윤삼중	남선우, 이병학, 송환창, 김제명	총무: 김춘권 / 안동현, 김연근, 최자용, 이인영, 전명옥, 장영옥, 한영숙	교제, 프로그램 진행, 섭외, 영접, 기록, 교재편찬
행정	김자생	장우천	오진국	총무: 허명호 / 오동환, 박창길, 차기봉, 김자철, 전순자, 김석운, 김상순	등록, 속식, 시설, 차량 예산집행
홍보	이종국	조동원	조신근, 손경수	총무: 이형수 / 이승철, 최영인	홍보, 각종 상황소개
봉사	김제명	장봉생	김여순, 박인진, 박상준	총무: 전홍렬 / 김구형, 박홍규, 박종규, 배춘식, 염숙현, 김효정, 주순화, 이정애, 김경희	안내, 접대, 관광
의료	이종석			총무: 손 철 / 이태식, 이병영	의료, 환자처치, 구급약, 위생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0회 총회 열려

9월 19일(화) ~ 22일(금), 우리 교회당에서
수요 1부 예배는 갈릴리홀, 11부 예배는 오후 7시30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0회 총회가 오는 9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모인다.

총회는 매년 한번씩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 금년 총회는 전국 104개 5회에 서 파송한 800여명의 총대(목사, 장로)들이 모여 교단 내의 일들을 처리하고 각 노회의 현의 사항들을 처리하며 차기 총회 임원들을 뽑는 등 교단 내의 가장 큰 행사이다.

이번 총회는 광복, 분단 50주년의 회년을 맞아 교단합동, 강단 교류 확산 등 대화합의 역사적인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총회 관계로 수요부예배는 갈릴리홀에서 드리게 되며 수요 11부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게 된다.

온 교우들은 전국에서 온 총대들을 따뜻하게 맞으며 거도로 함께해야 할 것이다.

김철륜 교수 지휘자로 청빙

교회는 실로암찬양대 지휘자 조신욱 집사가 미국에 장기체류함에 따라 기간 중 휴직을 명하고 후임자로 김철륜 교수를 청빙키로 했다.

김철륜 교수는 연세대, 연세대 대학원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고 대신신학 교졸업, 독일 Passau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안양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슬림 목사 청빙

교회는 이슬림 목사를 우리 교회 부목사로 청빙했다. 이 목사는 영어예배부 및 영어교육부 지도, 3부 예배 영어통역 및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및 바울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및 탈보트신학교에서 신학석사, 리폼드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나성현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일해왔다.

교역자 인사이동

제6·2교구의 이목자 전도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김광국 목사(제6교구)가 사면하게 됨에 따라 장경철 목사를 제6교구 지도로, 정복인 전도사를 제6·2교구 부지도로 각각 임명했다.

권사회 수련회 열려

9월 18~20일, 충현기도원에서

권사회수련회가 9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여름내내 각 부서의 쫓바라지를 하느라고 모이지 못했던 권사회는 여름행사가 다 끝나자 자체수련회를 갖게 되었다.

18일(월) 오후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는 저녁에 감동찬양을 모시고 개강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새벽부터 송대근 목사가 강사로 수련회를 인도하게 된다. 송 목사는 기간 중 새벽기도회, 오전 특강, 저녁 부흥회를 계속 인도하게 된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시 85:6)라는 주제하에 모이게 되는 권사회수련회는 300여명의 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현기도원행 배스는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중헌강단

● 시편강해 4 ●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시 4:1-8)

1. 본문의 배경 및 내용

시편 제4편은 제3편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기도입니다. 다시 말쑤드리면 그 당시 다윗은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인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는데 바로 그때 드린 기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1-5절까지는 다윗의 대적들을 향한 충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8절까지는 고난 중에도 누리게 될 기쁨입니다. 그리고 8절은 시편 4편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안해 놓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전쟁의 불안과 공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 대적들을 향한 충고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취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2절부터 대적에 대한 충고가 나오는데 2절을 보면 먼저 “인생들아”라고 했습니다. 인생들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깨나 있고, 권력깨나 있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도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기 쉽지만 우리는 단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기 ‘인생들아’ 하는 말에는 네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 그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합니다. 본문에 “어느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하는 것이 우연히 행한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허사를 좋아하고 꾀를 구하겠는고”라고 충고했습니다. 오늘날 인생들은 허사를 좋아합니다. 좋아할

것과 싫어할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 보다는 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인간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생은 구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사를 좋아하고 꾀를 구하겠는고”, 꾀를 구할 것을 말했습니다. 꾀이란 말은 거짓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압은 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고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꾀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마다 그의 종들을 택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들어서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모세, 다윗, 이사야, 엘리야라든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나 바울 사도 등등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또 구두직공인 무디도,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다름아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약 1:6-8).

4절과 5절을 보면 경건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줍니다.

첫째는 “너희는 멸며 범죄치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여기 ‘멸며’라는 말은 ‘분노를 발하며’라는 말입니다. 분노를 발하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 말은 우리의 이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아무리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정에 휘말리면 그때는 그만 실수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가 나면 감정과 분이 나고 그러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안전한 데가 어디 없을까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엔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품, 주님의 친절함 팔에 저와 여러분이 안기면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이고 그곳이 바로 기쁨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리에 누워 침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반성하라는 말입니다. 저녁에 침대에 들어가면 ‘아이고 피곤하구나’ 하고 바로 자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에게 물어보고 반성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 다 그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 바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제사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제사, 신령한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상한 심령은 뭘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3. 고난 중에서도 누릴 기쁨

6절과 7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서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들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꼬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러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세상의 다수 주의가 하는 얘기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 주의 얼굴을 비취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이 뭘까요? 성경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취실 때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이요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본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기쁨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만이 아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속적인 기쁨도 있고, 정신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기쁨이 아닌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히 놓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평안히 놓고 자기도 하리니, 분명히 저녁에 드리는 기도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안히 놓고 자기도 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안전한데가 어디 없을까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엔 안전한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품, 주님의 친절함 팔에 저와 여러분이 안기면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이고 그곳이 바로 기쁨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충만하여서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 8·15 백두산 산상기도회를 다녀와서



잘 가시오. 어서 통일이 되면 만날테니.....

장 봉 생

(목사, 선교위원회, 대학부, 예산부 지도)

학 원복음화협의회(이하 학복협)에서 주관하는 8.15 백두산 산상기도회에 두 번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8월 17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7박8일의 일정에 올랐다. 서울시내 몇교회 대학부 리더들과 대학생선교단체에서 참여한 간사 및 리더들로 구성된 40여명의 기도팀을 실은 비행기는 천진에 도착하였고, 이어서 버스로 북경까지 달렸다. 비슷한 외모의 공감대와는 달리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간간히 만나는 조선족의 우리말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북경의 현대적 분위기는 시골의 그것과 달랐다. 길조를 상징하는 붉은 색의 현관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왔음을 더욱 실감케 했지만, 이곳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고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고 있는 곳임에는 틀림없었다. 천안문 광장에서 지난 89년에 있었던 63사태를 연상해 보았다. 그러나 저녁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광장 여기저기를 가득메운 가족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공산주의 국가의 경직성이 아니라 화기에애한 가족관계 중심의 화목함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서태후의 흔적으로 얼룩진 이화원의 웅장함과 만리장성에서 내려다보는 인간의 무상함을 느꼈다.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당시 권력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귀중한 생명들이 평생을 그 일에 묶여 살았을 것이다.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북경대학 대신 청화대학을 견학하고, 거대한 자금성으로 향하였다. 소국 조선의 조공사절단이 웅대한 자금성으로 들어와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이틀 후에 북경을 떠나 연변자치주에 속한 연길로 향했다. 연길공항은 우리나라 시골역을 연상케했다. 그러나 금방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우리글이 반갑다. 조선

족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모든 현관 좌측에는 조선어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50%가 넘는 조선족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좌측에는 조선어, 우측에는 한자가 적혀있었다. 북한식 억양이긴 했지만 우리말로 대화할 수 있다는 점

길에서 가장 큰 삼자교회의 하나인 연길 기독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4부까지 드리는 주일예배는 노인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간절한 찬송과 아멘 소리는 이들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 두만강 도문에서. 다리 건너 지척에 북한 마을을 바라보면서

에서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민족정신과 동포애가 물씬 풍긴다.

그러나 이들 조선족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인은 아님을 시간이 조금 흐르고서야 알게 되었다. 그들이 국가를 위한다고 할 때에 그 국가란 중국을 뜻하는 것이지만 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국익이 곧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당연한 것이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는 한민족임을 공감하고 이해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당장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상이 더 절실했을 것이다. 그들은 중국인이다.

연변대학 초대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우리는 중국에서 주일을 맞이했다. 연

로 세워진 외국대학(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얻지는 못했다)인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하여 강의와 함께 학교소개를 들었다. 신실한 교수들과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다.

용정중학교에서 시인 윤동주 기념관을 방문했다. 국민학생 중학생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동포애가 느껴져 온다. 연변대학 복지병원을 방문하여 원장님의 안내를 받았다. 국내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삶의 모범을 좇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직원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우리 병원은 환자가 많

이 오면 올수록 더 적자 운영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죽을 각오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라는 말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도문으로 향했다. 150미터 다리를 사이에 두고 아래로 두만강은 흐르고 지척에 북한 땅이 눈앞에 펼쳐진다. 사람이 오가고 빨래가 널려있는 작은 마을이다. 당장이라도 뛰어가면 될 것 같고, 다리 건너 어울리고 건너가면 될 것 같은 땅이다. 먹지 못해 가족이 집단자살하고 자유를 찾아 헤엄쳐 건너던 두만강 건너편 내 조국의 땅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조국의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적소리를 울리며 중국땅에서 북한땅으로 기차가 철교위를 건너고 있다. "주님! 기차가 오가며 새들이 오가는 저 땅에 우리의 사랑도 오가게 하옵소서" 눈시울을 적신다.

백두산으로 향했다. 겨우 시동이 걸리는 버스는 예상대로 한번의 펑크를 내고 비포장도로위를 달렸다. 이런! 마주오던 버스를 피하려다가 언덕 아래로 굴렀다. 감사하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음이. 중상자는 없었고 두명이 입원하는 정도이며 다들 약간의 찰과상과 타박상에 그쳤다. 한참 걸어서 산속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한 조선족 아주머니의 정성이 눈물겹도록 고맙다.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말씀하신다. "잘 가시오. 어서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테니.....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동포니까" 다시 경성하면서 백두산 정상상을 향했다. 그림같이 깨끗하게 펼쳐진 천지물을 내려다보며 감탄과 함께 역사의 슬픔을 머금은 비애가 가슴속에 저려왔다. 맑은 편에 바라보이는 북한군 초소가 눈에 들어온다. 8.15일을 기하여 여러 팀이 올라온 것 같다. 모두들 그 장관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잠깐이요 마음 한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조국통일의 기도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연길로 돌아와 심양으로, 심양에서 1박하고 서울로 향했다. 사람이 그리워진다. 교우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보고싶다. 중국 땅에 거하는 한족, 우리 조선족들, 무엇보다 동토에 갇혀있는 북한 형제들이 더 그리게 다가온다. "불쌍한 그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정권이 빨리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를 부탁하는 음성이 가슴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제5회 충현올림픽 '뛰자 퍼치자 예수사랑'

활발한 각 팀별 모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충현교회 은 교우가 모여 치를 충현올림픽을 놓고 각 팀별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계획 및 준비에 여념이 없다.

각 팀별 조직이 완료되면서 각 팀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 조직을 활발히 운영하며 매주일 또는 주간 중에 모여 올림픽의 모든 내용을 살피며 각 팀에서 담당할 내용을 살피며 준비하고 있다. 이미 8월 13일(주일)에 결정한 각 팀별로 주일 오후에 연합모임을

갖고 경기종목에 따른 선수선발, 연습, 응원 연습 등을 계획하며 막바지 열심을 다하고 있다.

선교관 301호실로 본부도 정하고 매주일, 주간중 모임을 가지고 마지막 점검을 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당일에 발생할 모든 사항들을 시간별로, 경기별로, 각 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가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부는 그동안 공모해 왔던 충현올림픽 표어도 '뛰자

퍼치자 예수사랑'으로 결정했고 피켓절도 윤성혜 양(22세, 제12-2교구)으로 결정했다.

본 부 나 팀이나 각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이번 올림픽의 준비는 마무리지어져 간다. 문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가가 문제이다. 전교인 올림픽이기에 어린이부터 학생, 대학, 청년, 장년, 노

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할 때 명실상부한 충현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팀명칭	색깔	교구
제1팀(민음팀)	황색(정금과 같은 믿음)	1·4·12교구
제2팀(충성팀)	녹색(봉사와 성숙)	2·11·13교구
제3팀(사랑팀)	홍색(그리스도의 보혈)	3·5·10·14교구
제4팀(소망팀)	청색(천국의 소망)	6·7·8·9교구

토·막·소·식

◆ 영아부는 오늘 1, 2부 예배시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반별로 진행한다.

◆ 유아부는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충성 각 반별로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 초등1부는 9월 24일 글짓기 대회를 연다. 제목은 ① 우리 선생님, ② 우리 교회, ③ 여름성경학교이다.

◆ 초등3부는 오늘성경이야기 대회본선을 치른다.

◆ 초등4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잔치' (반별 장기자랑)을 10월 8일(주일)에 개최한다.

◆ 초등5부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한

실업인전도회에서 구인 구직 알선

실업인전도회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기업이나,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사람과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있다.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연락처는 전화 (☎ 552-8200, 교환 448번)으로 하거나 교육관 112호로 직접 찾아오면 된다.

다. 범위는 사도행전.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 중등1·2·3부는 10월 28일 연합으로 '시와 찬양의 밤' 모임을 갖는다. 프로그램 및 성극이나 문학, 찬양, 기악, 조명, 음향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중등2부는 9월 24일(주일)에 작은 음악회와 초청전도집회로 모인다.

◆ 고등부의 연극부 마라나타에서는 9월 24일(주일) 오전 11시 봉사관 마라다홀에서 '나르테우스'라는 제목으로 공연한다.

◆ 대학부는 제2학기 제자훈련 초급·중급반 교육이 있다 9월 2일 ~ 11월 5일까지 진행되며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 5시 30분까지이며, 80분은 강의중심, 50분은 조별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 새가정부는 9월 24일(주일)에는 성경퀴즈대회(요한복음 전장), 9월 30일(토) 야외예배, 10월 1일(주일)에는 성경암송대회.

◆ 장년1부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범위는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아멘찬양대는 대원출석 향상을 위한 파트별 '잃어버린 양 찾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원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 새가족양육부에서는 9월 17일(주일)에는 처벌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연다. 지정곡 102, 234, 388, 455, 168장. 자유곡은 484, 46, 318, 543장.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9/18(월) 권사수련회 개최예배 설교
9/19(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세계평화의날 기념예배 참석,
9/19(화)~22(금) 교단총회 참석, 9/23(토) COME세미나 강의
· 신성중 목사 : 9/18(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9/18(월) 총신 재단이사회 참석,
9/21(목) COME세미나 개강예배 설교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 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해외목회자초청(COME)세미나(9월 20 ~ 28일)와 총현올림픽(10월 3일)이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치루어지도록 인도하소서.
8. 각종 재난과 수해를 당한 남북한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북한의 수해복구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변화되게 하소서.

- 96학년도 총신대학 신학과에 입학할 지원하는 학생(수세 1년 이상)과 신학대학원 입시지원자(수세 5년 이상)는 목사후보생고시 청원서를
 - 96년도 강도사고시에 응하실 분은 강도사고시 추천청원서와 현재 총신신대원 재학생들은 신학계속추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회 사무국 총무과(☎ 563-2339, 김차철 집사)로 9월 21일(목) 12시까지 시간 접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청원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국제 컴세미나 기도 제목

9월 20일(수) 부터 ~ 28일(목) 까지

사랑하는 총현의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공간주의가 아니라 바로 알라신을 섬기고 있는 모슬렘이며, 현재 가장 치열한 영적전쟁은 기독교와 모슬렘과의 싸움입니다. 총현교회는 회교권 지역에 선교의 불을 붙이고, 세계복음화의 열정을 일으키기 위해 회교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회자 37명을 초청하여 9월 20일(수) ~ 28일(목)까지 국제 컴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컴세미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강사와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 하옵소서.
2. 회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전파된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회교권 지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주소서.
3. 초청된 이집트(28명), 수단(4명), 터키(5명) 목회자들이 은혜와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게 하옵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복음화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 선교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4. 컴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선교의 많은 장애물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회교권 복음화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5. 금번 컴세미나를 통하여 총현의 가족들에게 세계선교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선교의 불을 붙여주소시고, 좋은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6. 컴세미나 기간 동안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불타는 소명의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7. 회교권 지역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소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소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주소서.

이 사람을 만나보니

올림픽 피켓걸로 선발된 윤성혜 자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올림픽에 도움이 되었으면

총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노광현 장로)는 그동안 공모해온 피켓걸로 윤성혜 자매(22세, 제12-2교구)를 선발했다.

▶ 피켓걸로 뽑혔는데 소감은?

얼떨떨 합니다. 주위(교구)에서 추천하여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서 올림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하고 있는 일과 교회에서 소속부서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윤훈중, 신진숙 집사, 제12-2교구)들도 모두 총현교회에 다니고 저는 영아부때부터 총현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 지금까지 핸드벨 연주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까지 겹쳐 더욱 감사가 됩니다.

▶ 이제는 공식적으로 총현올림픽 피켓걸로 올림픽을 여는 선두에 서게 되었는데 각오는?

제가 총현올림픽을 여는 선두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되었으면 더 말할 나위 없겠



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저 자신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피켓걸은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올림픽에 집중하도록 올림픽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보게하며 올림픽의 열기를 짧은 시간에 모인 모두에게 전달시켜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을 한다.

171cm의 훔출한 키와 아름다운 얼굴에 못지않게 고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지닌 자매가 이번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형)